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6. 8. 24.(월) 10시

“장학금 받고 금융생활도 배운다”...고려인 고교생 15명 금융 교육

- 재외동포청·예금보험공사, 「고려인 동포 고등학생 금융교육 캠프」 개최
- 장학금에 실생활 금융교육 더해 진로 설계·자립 역량 강화

-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 고등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,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과 예금보험공사(사장 김성식)는 2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고려인 동포 15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과 「고려인 동포 고등학생 금융교육 캠프」를 열었다.
 - 참가자들은 2026년도 고려인 동포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다.
- 이번 장학사업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동포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예금보험공사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.
 - 예금보험공사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며, 국내 초·중학교 졸업 여부와 한국어 능력, 학업 성적, 가정형편 등 교육 여건과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15명을 선정했다.
- 이날 학생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익히는 교육을 받고,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.
 - 특히 금융을 낯선 전문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 스스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지식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.

○ 이날 캠프에 참여한 한 장학생은 “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쁘고 감하했다”며 “오늘 함께 선정된 장학생들을 만나 더욱 반갑고, 이번 장학금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□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강모세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은 “이번 장학사업과 금융교육 캠프가 고려인 동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,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착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“장학금 지원에 더해 고등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기회를 마련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려인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	책임자	과 장 강모세 (032-585-3280)
		담당자	주무관 김성환 (032-585-3283)